

정비업체 최초로 무재해 신기원은
가스·추락·협착 중점관리

한진기업주식회사는 지난 30여년 동안 제철설비의 정비와 보수 및 건설공사를 수행하여 제철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고, 특히, 포항종합제철(주)의 발전·송풍·산소·Gas설비와 고속회전기기, Holder 등의 설비정비에 있어서는 국내최고의 정비기술과 완벽한 전문정비 system으로 정비업체 최초로 무재해 5배를 달성하는 신기원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신기원의 기틀이 된것은 3대(Gas, 추락, 협착) 중점사항 관리였다.

1. 중점 안전경영활동의 필요성

한진기업은 발전 설비에 대한 정비업으로 가장 위험한 부분에서 작업을 한다. 이에 항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산업재해로부터 위협을 받아 왔다. 또한 포항종합제철(주)의 협력사로 사고는 곧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되어 경영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전경영은 기본이 된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재래형 재해 근절을 위해 3대 위험작업인 '가스 취급', '추락', '중량물에 의한 협착 위험'에 대해 중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3대 중점관리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2. 3대 중점관리 대상

재해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작업인 Gas 관련 작업에 의한 화재·폭발·질식 위험, 고소작업에 의한 추락위험, 중량물 취급작업에 따른 협착위험을 중점관리대상으로 꼽는다.

Gas 관리는 사전안전진단제도로 운영된다. 일선(주임, 계장)에게 주중 3일 이상 해당 작업에 대해 Gas 누출여부 등을 파악하고, 주임계장 주체하에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과단위로 담당 과장의 주관하에 주 1회 회의를 갖고, 문제점 도출 및 수정·보완한다.

추락 위험에 있어서는 2m 이상 작업 이외에도 보일러 내부 연소실의 약 20m 이상의 비계틀에서의 작업, 10m 이상의 외부 비계 작업과 대형 설비(발전기)를 분리·수리 할 때와 동력부에서 작업을 할 때 중량물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작업전 위험포인트 관리 및 Cross Check활동으로 위험요인 파악, 대책 수립 등 신뢰성을 확보한다.

3. 3대 중점 위험작업 관리 흐름도

작업이 발생하면 과장이 주체가 되어서 사전 위험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수립·조치를 한다. 주요 내용은 3대 재해 취약 관련작업 파악, 사전 Check List 이용, 도출된 위험요인과 관련된 대책수립 및 조치, 정비부 운영, 위험관리 전용 게시판에 기록 및 Point 관리 실시가 있다.



여기서 계획 수립·조치된 사항은 부장이 해당 작업을 취합, 검토·조치를 확인한다. 그 내용은 위험관리 전용계시판에 기록된 작업확인, 부단위 공동 대책수립 및 조치, 현장 확인 및 개선조치가 있다.

이러한 일련 사항은 월 1회 본부장(경영대리인)이 주관하여 개최되는 안전활동 분석회의에 총괄 보고하고,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확인한다. 주요 내용은 보고된 내용의 검토, 사전 예방대책 수립 방안 확인, 주요 작업 활동 안전진단이 이 회의에서 진행된다.

4. 중점관리 활동 효과

한진기업은 모든 안전활동에 있어 매월 경영주의 주체로 안전활동 분석회의가 개최되는데, 직접 최고 경영주가 안전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체크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3대 중점관리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

이처럼 위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아래에서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중간에서의 그 연결고리 역할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다.

이런 결과 2003년에 KOSHA 18001 인증과 금년 4월에 무재해 5배수를 달성하였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시상하는 중소기업부분에서 대상인 노동부장관상을 수상과 안전보건강조주간에 산재 예방 유공자 포상에서 노동부장관 단체 포상을 수상하는 등 겹경사가 발생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발전설비 정비업체에서 최초로 무재해 5배수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동종업종에서는 무재해 1배 달성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볼 때 한진기업의 무재해 5배수가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의 신기원인 것이다.

5. 맺음말

한진기업에서는 금년도 많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을 다져 살아 움직이는 한진기업만의 확고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형성한다는 각오이다. 여기에는 3대 중점관리 활동은 물론 합의된 안전전개로 자율안전의 뿌리를 굳힌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노력과 각오라면 앞으로 한진기업의 무재해 신기원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최종덕 기자)